

임신 말기 임신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에 관한 연구

이 수 연
(신일전문대학 간호과 강사)

목 차

- I. 서 론
- II. 문헌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고 찰
- VI.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부모가 되는 과정은 가족 주기에서 정상적인 발달 단계이나 부모 모두에게 복잡한 경험으로서 중요한 역할의 재조정, 만족과 긴장, 과도기적인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Butnarescu와 Tillotson, 1983).

따라서 부모 자신이나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되기 (parenthood)”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아기 양육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 어머니는 임신시부터 어머니 됨(motherhood)을 수용하고 태어날 아기의 예비부모로서 출산과 아기 양육을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어머니 됨이라는 말 속에는 어머니다운 마음가짐 혹은 감정(motherliness)과 어머니로서의 돌보기 활동(mothering)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Perdue, Horowitz와 Herz, 1977).

Perdue, Horowitz와 Herz(1977)는 돌보기 활동을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기술, 이해로 정의하였고 Butnarescu와 Tillotson(1983)은 돌보기 활동을 포함한 어머니 역할의 획득은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Duvall(1977)은 가족 발달 중 임신 인지에서부터 첫아기 출생까지의 기대단계(expectant phase)에는 태어날 아기의 신체적 돌보기를 준비하고 임신, 출산, 부모되기 의 세부 사항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예비부모로서의 업무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며 어머니 역할 수행의 학습 필요성을 주장했다.

산전 간호는 임신과 출산을 순조롭게 마치려는 어머니의 신체적 측면의 내용뿐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위한 어머니 역할 측면의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즉 임신시나 출산 후의 신체관리, 진통, 분만 경험에 대한 정보, 양육 자세, 아기와의 관계 형성, 역할의 재조정, 아기 돌보기에 대한 지식의 획득과 기술 습득 등이 산전 간호의 중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아 돌보기는 정확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올바른 돌보기 활동을 할 수 있고 출산 후 곧 바로 어머니가 돌보기 활동을 시작해야 하므로 임신 기간 동안 영아 돌보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성 간호사의 매우 중요한 임무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산전 간호의 문제점으로 임신부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개인 산부인과 의원이나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외래에는 흔히 전문직 간호사의 배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간호사에 의한 독자적인 산전 간호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며 비록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록 업무나 간호의 잡다한 일에 거의 치중하고 있으며 산전관리에서 산부

인파 의사에 의한 산전 진찰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신부들은 산후에 영아 돌보기에 필요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신체적 측면과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 중 어느 측면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영아 돌보기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나라 임신부들에게 성공적인 어머니되기할 준비시키기 위한 산전 간호의 내용을 재검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돌보기에 필요한 지식에 관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돌보기 자신감(이, 1987), 돌보기 능력감(Rutledge와 Pridham, 1987)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임신 말기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올바른 영아 돌보기 활동의 선행 요건이 되는 영아 돌보기 지식의 정도를 사정하고 영아 돌보기 지식의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산전 간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신 말기 임신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임신말기 임신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 2) 임신말기 임신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중 신체적 측면과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임신말기 임신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임신말기 임부: 임신 7개월 즉 28주 이후의 정상 임부로 산전 진찰을 받기 위해 조산소나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한 임부를 의미한다.
- 2) 영아 돌보기 지식: 생후 4주 이내의 영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신체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과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진위형 영아 돌보기 지식 척도에 의한 점수를 의미한다.

신체적 돌보기 지식은 목욕, 수유, 체온, 아기방의 온도 및 습도, 기저귀 갈아주기, 체대관리 등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고 사회 심리적 돌보기 지식은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한 사회적 자극과 관심, 아기 욕구의 충족, 애정 등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II. 문헌고찰

임신말기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아동 간호학 및 모성 간호학 교과서(Marlow, 1988; Waechter, 1986; Neeson과 May, 1986; Olds, London과 Ladewig, 1984; Butnaréscu와 Tillotson, 1983; Bobak과 Jensen, 1984; Chinn, 1979)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한 결과 행후 4주 이내의 영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중요한 지식은 신체적인 측면과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신체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은 수유, 복육에 관련된 지식, 기저귀 갈기, 체대 관리, 예방 접종, 아기방의 온도·습도 조절하기, 체온의 측정과 해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효과적인 돌보기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수유에 관한 지식은 수유의 횟수와 양, 수유 방법, 수유 시간, 트림시키는 시간과 방법, 목욕에 관한 지식은 목욕물의 온도, 목욕 시간, 목욕물의 양 그리고 체온 측정의 방법과 해석, 체온계 관리법, 아기방의 적절한 온도와 습도, 체온 조절 방법, 기저귀 가는 시기, 회음부 간호 등이었다.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은 사회적 자극의 제공, 부모·영아 관계 형성, 영아 요구의 충족, 영아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은 각 교과서에서 거의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임부나 산모를 대상으로 이러한 돌보기 지식에 관해 수행된 연구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돌보기 지식이나 돌보기 기술의 학습 요구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산후 교육 요구 혹은 간호 요구, 산후의 관심 거리등에 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다.

Adams(1963)는 조산모의 영아 돌보기 활동에 관한 산욕 초기 관심은 수유, 울음, 목욕, 배꼽과 포경수술 간호순서로 많았고, 분만 1개월 후 수유에 관한 관심

은 양과 빈도, 교형식이 첨가하기, 조유법, 수유법 순서로 많았다고 하였다.

Bull(1981)은 초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1주일제의 영아의 신체적 돌보기에 대한 걱정은 질병 증상,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 제대 관리 등의 신체 간호 및 옷 입히기 순으로 많았고 Davis, Brucker와 Macmullen(1987)은 산후 3일제의 산모가 인지하는 교육 우선 순위 연구에서 23분양의 영아 돌보기 문항 중 50% 이상의 산모가 교육내용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내용은 영아질병, 수유, 제대간호, 체온 측정, 투약이었다.

문헌 고찰을 종합해 볼 때 산모가 아기의 돌보기에 대해 걱정하거나 교육요구를 나타낸 사항은 대부분 신체적 돌보기에 관한 내용이었고 사회 심리적 돌보기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개방성 질문 형식의 설문 조사에서도 어머니의 반응 중 사회 심리적 돌보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영아 돌보기에 초점을 둔 연구는 없었고 산후 전반적인 걱정거리로서 어머니 자신의 문제를 더 많이 포함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분만전 임신부의 돌보기 지식이나 준비도에 관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웠다(Moss, 1981; Bull과 Lawrence, 1985; Gruis, 1977; Harrison과 Hicks, 1983; Mercer, 1981; Pridham, Hansen, Bradley와 Heighway, 1982)

Pridham과 Schutz(1981)는 출산과 영아 돌보기에 대한 부모의 준비도에 관한 연구에서 분만 후 입원 동안 간호사에 의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1/3정도의 산모가 14개 수유 문항 중 8개에 대해 준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하여 영아 돌보기에 대해서는 산전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본 지식은 일회적인 정보 제공이나 임박한 시기의 교육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준비를 통하여 내재화되어야 효과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산후에 영아를 돌보는데 요구되는 기본 지식은 산후 입원 중이나 퇴원 후에 보다는 임신 기간 동안 습득하는 것이 유리하고 아울러 관련 기술의 획득도 이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모성간호사는 적절한 지식 제공을 위해서 먼저 임신부가 가진 돌보기 지식 정도에 대한 사정을 실시해야 한다.

임신부의 돌보기 지식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Rutledge와 Pridham(1987)은 문헌 고찰을 통하여 영아 돌보기 능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만 후 입원 동안의 경험, 사회인구학적 배경, 수유방법, 제대기간 및 산모가 받는 사회적 지지로 종합하였다. 또한 Mercer(1981)는 영아 돌보기를 포함한 어머니의 역할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자아 개념과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체계, 출산 경험에 대한 지각, 초기 모아 분리, 어머니의 질병, 사회적 스트레스, 영아의 행동 유형 및 양육 신념으로 종합 정리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선 임신말기 임부가 4주 이내의 영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식을 신체적인 측면과 사회심리적인 측면으로 대별하여 지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이 척도에 의한 임신말기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신 말기 임신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를 파악하는 기술적 조사 연구로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1989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J시에 소재하는 2개 종합 병원, 2개 산부인과 의원, 2개 조산소에 산전 간호를 위해 내원한 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선택하였다.

- 1) 임신 28주 이후 인 자
- 2) 임신 합병증 및 기타 질환이 없는 자
- 3) 정상 부부 생활을 하는 자

Jensen과 Bobak(1985)에 의하면 임신 3기는 모성 역할에 현실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 돌보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획득해야 하는 임신 28주 이후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임신부의 지식 획득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 임신 합병증 및 기타 질환을 가진 임

신부 및 불완전한 부부 생활을 하는 임부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J 시내에 거주하는 임신 28주 이후의 건강한 임부로 하고, 산전 관리를 위해 J 시내의 2개 종합병원, 2개의 산부인과 의원, 2개의 조산소에 내원한 임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대상 의료 기관은 각 8개소의 3종류의 전체 산전 관리 및 분만 시술을 하는 의료 기관 중 25%에 해당하는 2개소씩 임의 선정하였고 각 규 의료기관은 산전 관리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상 의료 기관을 미리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다음 연구자에 의해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내용,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미리 훈련 받은 4명의 간호대학 3학년 학생이 내원한 임신부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작성케 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결과 분석 대상에 포함된 대상자 수는 159명이었다.

3. 자료 수집 도구

영아 돌보기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진위형 시험 문제 형식의 도구를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아동 및 모성 간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산후 약 4주간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을 추출한 다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하나의 지식 문항으로 만들고 너무 전문적이거나 혹은 누구나 아는 보편적인 지식은 제외한 다음 3인의 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어휘의 적절성, 난이도,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신체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 25문항,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 25문항씩의 도구를 작성하였다.

이 도구를 분만 후 입원 중인 3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각 문항 내용의 이해도를 검정한 결과 적절성이 인정되었다.

본 도구는 각 지식에 대한 내용을 평서문으로 작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문항을 임의로 섞어 놓았다. 각 지식 문항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 틀린다고 생각하면 ×로 표시하게 한 다음 올바르게 답을 한 것은 1점, 틀리게 답을 한 것은 0점으로 채점하였다. 점수가 많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은

[표 1] 임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실 수	%
연 령	25세 이하	42	26.4
	26 - 30세	98	61.6
	31세 이상	19	11.9
교육정도	국	1	0.6
	중	15	9.4
	고	89	56.0
	대	54	34.0
직업유무	유	27	17.0
	부	132	83.0
남편의 직업	회 사 원	86	54.1
	자 유 업	41	25.8
	전 문 직	11	6.9
	기 타	21	13.2
원하는 아기의 성	아	110	69.2
	딸	37	23.3
	관계없다	12	7.5
현재 자녀수	없	99	62.3
	1	55	34.6
	1명 이상	5	3.1
시부모와의 동거유무	유	45	28.3
	무	114	71.7
임신에 대한 문의대상	의 사	37	23.3
	친 구	48	30.2
	부 보	52	32.7
	없	22	13.8
임신에 대한 정보얻는 곳	책	132	83.0
	방송대체	13	8.2
	기 타	14	8.8
산전 관리 횟수	5회 이하	41	25.8
	6 - 10회	79	49.7
	11회 이상	39	24.5
임신 주수	32주 이하	44	27.7
	33 - 36주	46	28.9
	37주 이상	69	43.4
합	계	159	100.0

것을 의미하며 본 도구에 의한 신체적 측면과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의 최고 점수는 각각 25

점이다.

4. 자료의 분석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은 백분율을 산출하고 돌보기 지식 정도는 평점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지식 문항별 정답자 수와 정답률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별 돌보기 지식 정도는 t-test와 ANOVA로 차이의 유의성을 결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각 특성별 가장 많은 집단을 보면 임부의 연령은 26~30세가 98명(61.6%)이며, 교육 정도는 고졸이 89명(56.0%)이며,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가 132명(83.0%)이었다. 임부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 86명(54.1%)로 가장 많았다. 초임부가 99명(62.3%)이며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114명(71.7%)이었다. 임신에 대한 문의 대상자는 부모가 52명(32.7%), 친구가 48명(30.2%), 의사가 37명(23.3%) 순이었으며 간호사에게 묻는 응답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임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책이 132명(83.0%)이었으며 임신부가 산전 판리를 받은 횟수는 6~10회가 79명(49.7%)이며, 임신 주수는 37주 이상이 69명(43.4%)이었다[표 1].

2.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는 최고 50점에서 평균 36.75±4.20으로 나타났다. 영아 돌보기 지식 총에서 신체적 측면에 관한 지식 정도는 최고 25점에서 평균 16.70±2.74이며, 사회 심리적 측면에 관한 지식 정도는 최고 25점에서 평균 20.05±2.51이었다 [표 2].

[표 2] 임부의 영아돌보기 지식정도

	최 고 점	평 균	표준편차
신체적 돌보기 지식	25	16.70	2.74
사회심리적 돌보기 지식	25	20.05	2.51
합 계	50	36.75	4.20

3.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항목에 따른 지식 정도

1) 신체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 항목에 따른 지식 정도

영아 돌보기 중 신체적 측면에 관한 임부의 지식 정도는 159명의 임부 중에서 80% 이상이 올바른 답을 한 항목은 25개 항목 중 6개 항목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저귀가 젖었을 때는 빨리 갈아줄수록 좋다」가 95.0%, 「복은 젖먹인 직후에 시키면 좋지 않다」가 91.8%, 「트림을 시킬때는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좋다」가 89.9%, 「목욕시간은 10분 정도가 적당하다」가 87.4%, 「아기들은 보통 3~4시간마다 배가 고파서 운다」가 83.6%, 「아기가 있는 방의 습도는 60% 내외가 좋다」가 83.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 항목 중 159명의 임부 중에서 60% 이하가 맞힌 항목은 25개 항목 중 8개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젖을 먹인 후 트림을 시키는 이유는 젖을 먹는 동안 함께 삼킨 공기란 배출시키기 위함이다」가 17.6%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트림은 젖을 다 먹인 후 바로 시켜주는 것이 좋다」가 23.3%, 「아기의 배꼽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가 37.7%, 「체온계의 소독은 끓이지 않는다」가 46.5%, 「젖을 먹일 때는 젖꼭지 주위 유륜부까지 아기 입안에 넣는 것이 좋다」가 50.3%, 「생후 1개월의 아기에게는 턱받이가 필요하지 않다」가 53.5%,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항문주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는 것은 피부에 자극이 된다」가 54.7%, 「체온을 잴 때 체온계를 항문에 넣은 후 다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가 56.6%로 나타났다 [표 3~1].

2) 사회 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 항목에 따른 지식 정도

영아 돌보기 중 사회 심리적 측면에 관한 임부의 지식 정도를 보면 159명의 임부 중에서 80% 이상이 올바른 답을 한 항목은 25개 항목 중 13개 항목이며 정답률이 높은 순위별로 5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주 웃어 주는 것이 좋다」는 100.0%, 「아기에게는 “잘한다, 응지”하는 칭찬을 자주 해 주는 것이 좋다」가 98.7%, 「아기가 장난감을 본다면 “장난감을 보

[표 3-1] 일부의 신체적 돌보기 지식 항목에 따른 지식정도

항	목	정답자수	정답률(%)	정답률 순위
1.	목욕물의 온도는 팔꿈치끝 넣어서 뜨거우면 적절하지 않다.	98	61.6	17
2.	목욕시간은 10분 정도가 적당하다.	139	87.4	4
3.	목욕통의 물의 양은 1/3쯤 차는 것이 안전하다.	117	73.6	13
4.	목욕은 젖먹인 직후에 시키면 좋지 않다.	146	91.8	2
5.	아기들은 보통 3~4시간마다 배가 고파서 운다.	133	83.6	5
6.	젖은 약 15~20분 동안 먹이는 것이 좋다.	118	74.2	12
7.	트림을 시킬때는 아기의 등을 바로 세운 상태에서 한다.	110	69.2	15
8.	트림을 시킬때는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좋다.	143	89.9	3
9.	트림은 젖을 다 먹인 직후 바로 시켜주는 것이 좋다.	37	23.3	24
10.	젖을 먹인 후 트림을 시키는 이유는 젖을 먹는 동안 함께 삼킨 공기끝 배출시키기 위함이다.	28	17.6	25
11.	아기가 젖을 먹는 동안에 자는 것은 보통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123	77.4	8
12.	젖을 먹일 때는 젖꼭지 주위 유륜부까지 아기 입안에 넣는 것이 좋다.	80	50.3	21
13.	젖을 먹인 후 약 15분 동안 상체를 높혀 두는 것이 안전하다.	120	75.5	10
14.	분만 후 처음 2~3일 경에 나오는 노란빛 초유는 꼭 먹이는 것이 좋다.	119	74.8	11
15.	체온을 잴 때 체온계를 항문에 넣은 후 다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90	56.6	18
16.	체온을 재기 전에 수은주를 35°C이하로 내려야 한다.	104	65.4	16
17.	체온계의 소독은 필요하지 않다.	74	46.5	22
18.	아기의 체온은 36.5°C~37.5°C이다.	124	78.0	7
19.	아기가 있는 방의 온도는 24°C정도가 좋다.	121	76.1	9
20.	아기가 있는 방의 습도는 60% 내외가 좋다.	132	83.0	6
21.	아기는 체온조절이 어려우므로 옷을 너무 두껍게 입히지 않는 것이 좋다.	116	73.0	14
22.	기저귀가 젖었을 때는 빨리 갈아줄수록 좋다.	151	95.0	1
23.	아기의 배꼽피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60	37.7	23
24.	생후 1개월의 아기에게는 턱받이가 필요하지 않다.	85	53.5	20
25.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항문주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는 것은 피부에 자극이 된다.	87	54.7	19

고 있나? 라는 식으로 아기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가 98.7%, 「아기가 젖꼭지를 빨고 있는 동안에는 방해할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96.9%였다.

그리고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 항목 중 159명의 일부 중에서 60% 이하가 맞힌 항목은 25

개 항목 중 2개 항목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기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기말(찌찌, 음-마)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가 35.2%로 정답률이 가장 낮았으며, 「아기가 울고 보채면 곧 바르 달래주는 것이 좋다」가 56.0%로 나타났다 [표 3-2].

[표 3-2] 임부의 사회 심리적 돌보기 지식 항목에 따른 지식정도

항	목	정답자수	정답률(%)	정답률 순위
1.	아기와 눈을 자주 맞추는 것이 좋다.	155	97.5	6
2.	아기는 색깔이 많고 모양이 다양하고 무늬가 많은 것을 좋아하므로 방 주위에 여러가지 물건을 걸어 놓는 것이 좋다.	96	60.4	22
3.	아기요나 이불은 무늬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시각 자극에 좋다.	103	64.8	21
4.	젖을 먹일 때 아기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좋다.	148	93.1	8
5.	젖을 먹일 때 꼭 껴안고 먹이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118	74.2	18
6.	아기가 알아듣지 못해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좋다.	157	98.7	3
7.	아기가 울고 보채면 곧 바로 달래주는 것이 좋다.	89	56.0	24
8.	아기를 자주 꼭 안아주는 것이 좋다.	120	75.5	16
9.	아기를 안거나 달래도 계속 울 때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내도록 한다.	121	76.1	15
10.	아기와의 관계가 밀접한 것은 장차 아기의 독립심 형성에 해가 되지 않는다.	106	66.7	20
11.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면 젖을 먹일 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주는 것이 좋다.	96	60.4	22
12.	젖을 먹이는 동안에 아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127	79.9	14
13.	자주 웃어 주는 것이 좋다.	159	100.0	1
14.	아기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	137	86.2	11
15.	아기가 장난감을 본다면 “장난감을 보고 있니?”라는 식으로 아기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157	98.7	3
16.	아기에게는 “잘한다, 옳지”하는 칭찬을 자주 해 주는 것이 좋다.	158	99.4	2
17.	아기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기말(찌찌, 음-마)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	56	35.2	25
18.	아기가 너무 많이 울더라도 꾸짖는 것이 좋지 않다.	129	81.1	13
19.	아기의 나쁜 행동을 꾸짖기 위해 “안돼, 하지마”등과 같은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111	69.8	19
20.	아기와 함께 놀 때는 아기에게만 관심을 준다.	155	97.5	6
21.	이야기 할 때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것이 좋다.	120	75.5	16
22.	젖을 먹이는 동안 젖꼭지를 밀어내거나, 울거나 뺨대면 젖을 먹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139	87.4	10
23.	아기가 젖꼭지를 빨고 있는 동안에는 방해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54	96.9	5
24.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책을 보거나, T.V.시청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134	84.3	12
25.	젖을 먹는 동안 아기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더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143	89.9	9

[표 4] 임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영아 돌보기 지식정도

사회 인구학적 배경	신체적 돌보기지식		사회심리적 돌보기지식		영아 돌보기지식	
	평균 (표준편차)	t 혹은 F	평균 (표준편차)	t 혹은 F	평균 (표준편차)	t 혹은 F
연령						
25세 이하	16.10 (2.67)		19.29 (2.40)		35.38 (3.71)	
26 - 30세	17.19 (2.45)	4.73*	20.46 (2.33)	3.64*	37.65 (3.78)	6.35**
31세 이상	15.47 (3.53)		19.63 (3.24)		35.11 (5.93)	
교육정도						
국졸	16.00 (3.73)		23.00 (2.54)		39.00 (5.26)	
중졸	14.73 (2.43)	3.36*	18.20 (2.36)	4.52**	32.93 (3.71)	5.97**
고졸	16.73 (2.75)		19.97 (2.51)		36.70 (4.14)	
대졸	17.20 (2.74)		20.65 (2.51)		37.85 (4.20)	
현재 자녀수						
없다	16.54 (2.75)		20.24 (2.30)		36.78 (3.97)	
1명	16.91 (2.70)	0.61	19.62 (2.84)	1.48	36.53 (4.58)	0.56
2명 이상	17.60 (3.21)		21.00 (2.45)		38.60 (4.93)	
임신에 대한 문의 대상자						
의사	16.43 (3.31)		19.89 (2.77)		36.32 (4.96)	
친구	16.67 (2.30)		20.25 (2.23)		36.92 (3.47)	
부모	17.04 (2.77)	0.46	20.10 (2.50)	0.24	37.13 (4.24)	0.43
없다	16.41 (2.58)		19.77 (2.78)		36.18 (4.36)	
산전관리 횟수						
5회 이하	16.80 (2.77)		19.90 (2.42)		36.71 (4.10)	
6 - 10회	17.04 (2.47)	2.35	20.04 (2.48)	0.17	37.08 (3.93)	0.66
11회 이상	15.90 (3.11)		20.23 (2.71)		36.13 (4.84)	
임신주수						
32주 이하	16.89 (3.15)		19.59 (3.16)		36.48 (5.47)	
33 - 36주	16.24 (2.64)	0.91	20.26 (2.24)	1.03	36.50 (3.85)	0.39
37주 이상	16.88 (2.52)		20.20 (2.19)		37.09 (3.48)	
합계	16.70 (2.74)		20.05 (2.51)		36.75 (4.20)	

N=159명

* P<0.05

** P<0.01

4. 임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

임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임부의 연령, 교육 정도만이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35$, $P<0.01$, $t=5.97$, $p<0.01$). 임부의 연령 26~30세 집단, 교육 정도가 대졸인 집단에서 더 높은 영아 돌보기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임부의 현재 자녀수, 임신에 대한 문의 대상자, 산전관리 횟수 및 임신 주수는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V. 고 찰

연구 대상자인 임부는 최저 20세에서 최고 34세로

연령에서 고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중·고졸이 65.4%, 대졸이 34.0%를 차지하였다. 또 원하는 아기의 성은 아들이 69.2%로 딸을 원하는 경우 23.3%의 거의 3배에 이르렀다.

임신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 대상자는 전문인인 의사에게는 23.3%, 친구나 부모에게는 62.9%로 나타났으며 질문지 문항에 간호사가 있음에도 단 한 명의 임부도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임신을 대하는 태도 즉 임신을 가족 중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 남에게 적절 알리지 않거나 남자가 있는 곳에 나가기를 꺼리는 태도와 관련되어 전문인보다는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부모나 친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여겨지며 한편으로는 의사에게는 임신의 합병증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나 태아의 안녕에 관한 것만 확인하고 그의 임신에 따른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는 임신 경험이 있는 부모나 친구를 주요 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간호사를 문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호사들이 기록 업무와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에 치중하므로 임부들이 산전 관리에서 의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며 그리고 조사 대상인 J 중소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에 의한 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 여겨진다.

연구 대상자인 임부의 산전 관리 횟수는 6회 이상이 71.2%로 임신 말기 임부에게 권장되는 산전 관리 횟수를 비교적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는 0에서 50점까지 가능한 점수 범위에서 평균 36.75±4.20로 73.5%의 정답률을 보였다.

영아 돌보기 중 신체적 측면에 관한 지식과 사회 심리적 측면에 관한 지식 정도는 0에서 25점까지 가능한 점수 범위에서 각각 16.70±2.74와 20.05±2.51로 나타났으며 정답률은 66.8%와 80.2%였다. 이는 신체적 돌보기 지식 정도가 사회 심리적 돌보기 지식 정도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다.

영아 돌보기 지식 중 신체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 항목 중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젖을 먹인 후 트림을 시키는 이유는 젖을 먹는 동안 함께 삼킨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함이다」(17.6%)와 「트림은 젖을 다 먹인 후 바로 시켜 주는 것이 좋다」(23.3%)

이며 이는 젖을 먹인 후 트림을 시키는 이론적 근거와 영아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젖을 먹이거나 트림을 시킬 때 구토나 질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써 산후 영아 돌보기에서 오류를 범할 소지될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기의 배꼽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항목도 낮은 정답률(37.7%)을 보이고 있으며 임상 실례에서도 지나치게 두꺼운 배꼽띠를 감아두므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체온계의 소독은 끓이는 것이 좋다」는 항목은 46.5%, 「생후 1개월의 아기에게는 턱받이가 필요하지 않다」는 53.5%,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항문 주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 것은 피부에 자극이 된다」는 54.7%의 정답률을 보여서 간단한 것일지라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젖을 먹일 때는 젖꼭지 주위 윗부분까지 아기 입안에 넣는 것이 좋다」는 항목도 50.3%로 비교적 정답률이 낮은 편이며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는 산전 관리에서 간호사에 의해 영아의 생리적 특성 및 돌보기 활동 중 특히 수유나 트림에 대한 실제 시범을 통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영아의 사회 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 항목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아기에게 이야기 할 때는 아기말(찌찌, 음·마)로 하는 것이 좋다」(35.2%)였으며, 그 다음이 「아기가 울고 보채면 곧 바로 달래주는 것이 좋다」(56.0%)이며 60.4%의 정답률을 보인 것은 「아기는 색깔이 밝고 모양이 다양하고 무늬가 많은 것을 좋아하므로 방 주위에 여러가지 물건을 걸어 놓는 것이 좋다」와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면 젖을 먹일 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주는 것이 좋다」였다. 이는 영아기의 언어 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과 영아기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아기가 울고 보채 때 곧 바로 달래주는 것은 아기의 버릇을 나쁘게 형성시키거나 응석받이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임부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영아기의 시각자극에 대한 이해 및 발달 과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들이 산전 관리 중 임신 말기 임부의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강조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임부의 연령에 따른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매우 낮은 경우, 매우 높은 경우가 영

아 돌보기 지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비교적 고된 연령 분포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26~30세 집단이 비교적 높은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의 교육 정도에 따른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는 국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집단수가 1명으로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대졸, 고졸, 중졸 순위로 높은 점수를 보여 교육 정도가 낮은 임부는 취약 집단으로 산전 관리에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ight와 Fenster(1974)은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산전기간 동안 영아 돌보기 기술을 배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현재 자녀수에 따른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Bliss-Holtz(1988)의 연구에서는 어린이를 돌본 경험이 있는 연구 대상자는 영아 돌보기에 대한 관심을 덜 나타내리라 생각되었으나 변수들 집단간의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임부가 임신 동안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주로 문의하는 대상, 임부의 산전 관리 횟수 및 임신 주수에 따른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문의 대상자가 전문인인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 산전 관리 횟수가 많을 때 그리고 임신 주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영아 돌보기 지식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들 전문인에 의한 돌보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임신 기간 동안 임부들이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가 산후에 영아 돌보기에 직접 관여하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신 말기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또한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J시에 소재하는 2개 종합병원, 2개 산부인과 의원, 2개 조산소에 산전 관리를 위해 내원한 임부 159명이었으며 조사 기간은 1989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다. 임신 말기 임신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측정 도구는 본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통해 작성한 진위형 시험문제 형식의 도구를 이용하였고 자료는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t-test와 ANOVA로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는 평균 36.75. 신체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은 16.70, 사회 심리적 측면에 관한 돌보기 지식 정도는 20.05로 나타났다.

2)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항목 중 신체적 측면에 관한 지식 항목에서 정답률이 80% 이상인 항목은 「기저귀가 젖었을 때는 빨리 갈아줄수록 좋다」, 「목욕은 젖 먹인 직 후에 시키면 좋지 않다」, 「트림을 시킬 때는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좋다」, 「목욕 시간은 10분 정도가 적당하다」, 「아기들은 보통 3~4시간마다 배가 고파서 운다」 및 「아기가 있는 방의 습도는 60%내외가 좋다」였다. 정답률이 60% 이하인 항목은 「젖을 먹인 후 트림을 시키는 이유는 젖을 먹는 동안 함께 삼킨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함이다」, 「트림은 젖을 다 먹인 후 바로 시키는 것이 좋다」, 「아기의 배꼽 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체온계의 소독은 끓이지 않는다」, 「젖을 먹일 때는 젖꼭지 주위 윗부분까지 아기 입안에 넣는 것이 좋다」, 「생후 1개월의 아기에게는 턱받이가 필요하지 않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항문 주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는 것은 피부에 자극이 된다」 그리고 「체온을 잴 때 체온계를 항문에 넣은 후 다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였다.

3)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항목 중 사회 심리적 측면에 관한 지식 항목에서 정답률이 80% 이상인 13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주 웃어 주는 것이 좋다」, 「아기에게는 “잘한다. 옹지”하는 칭찬을 자주 해 주는 것이 좋다」, 「아기가 장난감을 부다면 “장난감을 보고 있니?”라는 식으로 아기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아기가 알아듣지 못해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좋다」, 「아기가 젖꼭지를 빨고 있는 동안에는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기와 눈을 자주 맞추는 것이 좋다」, 「아기와 함께 놀 때는 아기에겐만 관심을 준다」, 「젖을 먹일 때 아기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좋다」, 「젖을 먹는 동안 아기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더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젖을 먹이는 동안 젖

꼭지를 떨어내거나, 울거나 뺨대면 젖을 먹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아기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책을 보거나, T·V 시청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아기가 너무 많이 울더라도 꾸짖는 것은 좋지 않다」였다. 정답률이 60% 이하인 항목은 「아기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기말(저저, 음-마)로 하는 것이 좋다», 「아기가 울고 보이면 꼭 바로 달래주는 것이 좋다」였다.

4) 임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에서는 임부의 연령($p<0.01$), 교육 정도($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는 정답률 73.5%로 보통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체적 돌보기 지식이 사회 심리적 돌보기 지식보다 높으리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사회 심리적 돌보기 지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구의 난이도에 대한 재고와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아 돌보기 지식 항목 중 정답률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산전 관리에서 간호 교육 내용으로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와 수행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 2)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를 영아기 전반에 걸쳐 사정하는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 3) 임부의 영아 돌보기 지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이은숙, "초산모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 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Adams, Martha. "Early concerns of primigravida mothers regarding infant care activities", N.R., 1963, 12 ; 2, 72~77.

Bliss-Holtz, V.J., "Primiparas' prenatal concern for learning infant care", N.R., 1988, 37 : 1, 20~24.

Bobak & Jensen, Essentials of Maternity Nursing,

The C.V. Mosby Company, 1984.

Bull, M.J., "Change in concerns of first-time mothers after one week at home", JOGN Nursing, 1981, Sep./Oct., 391~394.

Bull, M.J., Lawrence, D., "Mothers' use of knowledge during the first postpartum weeks", JOGN Nursing, 1985, Jul./Aug., 315~320.

Butnarescu, G.F., Tillotson, Delight, M., Maternity Nursing, Theory to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3.

Chapman, J.J., Macey, M.J., Keegan, M., Borum, P., and Bennett, S., Concerns of breast feeding mothers from birth to 4 months", N.R., 1985, 34 : 6, 374~377.

Chinn, Peggy L., Child Health Maintenance, 2nd ed., St. Louis, The C.V. Mosby Company, 1979.

Davis, J.H., Brucker, Mary, c., Macmullen, Nancy, J., "A study of mothers' postpartum teaching priorities", MCNJ, 1987, 41~50.

Duvall, Evelyn,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77.

Gruis, M., "Beyond maternity : postpartum concerns of mothers",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1977, May/June, 182~188.

Harrison, M.J., Hicks, S.A., "Postpartum concerns of mothers and their sources of help,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83, 74 : Sep/Oct., 321~328.

Light, H., Fenster, C., "Maternal concerns during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974, 3, 46~50.

Marlow, Dorothy, R., Redding, Barbara, A., Textbook of Pediatric Nursing, 6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1988.

Mercer, R.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R, 1981, 30 : 2, 73~77.

Mercer, R.T., "The nurse and maternal tasks early postpartum", MCN, 1981, 6 : Sep./Oct., 3~345.

- Moss, J.R., "Concerns of multiparas on the third postpartum day, JOGN Nursing, 1981, Nov./Dec., 421~424.
- Nceson, May, Comprehensive Maternity Nursing, Philadelphia, Lippincott, 1986.
- Olds, S.B., London, M.L., and Ladewig, P.A., Maternal-Newborn Nursing, 2nd ed.,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84.
- Perdue, B.J., Horowitz, J.A., and Herz, F., "Mothering",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977, 12 : 3, 491~502.
- Pridham, K.F., Schutz, M.E., "Preparation of parents for birthing and infant care",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1981, 13 : 2, 181~188.
- Pridham, K.F., Hansen, M.F., Bradley, M.E., and Heighway, S.M., "Issues of concern to mothers of new babies,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1982, 14 : 6, 1079~1085.
- Rubin, R., "Puerperal change", Nursing Outlook, 1961, 9 : 12, 743~755.
- Rutledge, D.L., Pridham, K.F., "Postpartum mothers' perceptions of competence for infant care, JOGN Nursing, 1987, May/June, 185~194.
- Waechter, Phillips and Holaday, Nursing Care of Children, 10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1986.

<ABSTRACT>

A Study on Third-trimester Gravidas' Knowledge of Infant Care Activity

Lee, Soo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degree of gravidas' knowledge of infant care activity,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ifference of gravidas' knowledg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159 gravida visited 2 general hospitals, 2 OB/GY clinics and 2 midwives' clinics in J city for antenatal ca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 to 30, 1989.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true false type question which was developed by investigator through literature review. Data were analyzed by percentage, mean, t-test and ANOVA on significant difference with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 :

1) The degree of gravidas' knowledge of infant care activity was 36.75, the degree of gravidas' knowledge of physical care activity was 16.70, and the degree of gravidas' knowledge of psychosocial care activity was 20.05.

2) Among the physical care activity knowledge items, the diaper should be changed whenever it is soiled, [shortly after feeding is over, bathing is bad], [gently patted or stroked on the back when bubbling], [10 minutes time in bathing is appropriate], [infant is crying whenever he is hungry per 3-4 hours], and [room humidity controled 60 percent, more or less] were over a percentage of 80 of right answer.

Among the physical care activity knowledge items, [a reason for burping was the air he has swallowed will rise to the top of his stomach and be cructated], [burping is advisable after the feeding], [dressing of umbilical area is not necessary], [the thermometer should not be boiled for disinfection], [it is important that the infant grasp the whole nipple within his mouth], [using alcohol sponge is bad whenever diaper is soiled], and [when temperature is taken by the rectal method, infant legs should be grasped firmly] were less than a percentage of 60 of right answer.

3) Among the psychosocial care activity knowledge items, [it is nice, mother smile at baby frequently], [it is nice, mother praise a baby frequently], [it is nice, mother express baby's behavior], [talk frequently to the baby], [the baby should not be disturbed while feeding], [it is nice, mother see a baby face to face], [it is nice, mother concentrate one's attention on her baby while playing], [it is nice, mother pat one's baby while he is feeding], [it is advisable, the baby is allowed to touch mother's breast while he is feeding], [it is advisable to stop feeding, if the baby protrudes one's tongue or cries while feeding], [baby is able to hear, see and smell], [it is nice, mother concentrate one's attention on her baby while feeding], and [it is not advisable for mother to scold baby while he is crying out] were over a percentage of 80 of right answer.

Among the psychosocial care activity knowledge items, [Using baby talks is bad when mother talks to baby] and [it is nice, mother soothes the baby as soon as possible when he is crying] were less than a percentage of 60 of right answer.

4)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gravidas' knowledge of infant care activity and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gravida such as the age($p < 0.01$) and education level($p < 0.01$).

From these results, it may be concluded that gravidas' knowledge of infant care activity is moderate level, and gravidas' knowledge of psychosocial care activity is greater than that of physical care activity. Also prenatal nursing educations should focus on subjects who have lower percentage of right answer in infant care activity knowledge items.

◇ 투고 규정 ◇

1. 본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논문(중설 포함)
 - 2) 사례보고
 - 3) 수 기
2. 투고자격은 본회 회원이어야 하며 비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 1) 본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하였을 때
 - 2) 본회가 의뢰한 원고일 경우
 - 3) 본회 출판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원고의 채택에 대하여는 출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게재료 및 원고료
 - 1) 연구논문: 게재료 지각 부담 1페이지당 10,000원(별책 20부 포함)
 - 2) 원 고 료: 사례, 수기 등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금 지불
5.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원고료를 게재하지 않으면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6. 원고는 200자 원고지에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꼭 필요한 한자나 구문 사용시는 ()속에 병기해야 한다.
7. 논문에 있어 국문원고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는 국문초록을 각각 첨부해야 하고 영문인 경우에는 타자하여야 한다.
8. 참고문헌은 원고말미에 가나다와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9. 원고접수는 수시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88-7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앞

* 참고문헌 보기

단 행 본

참고문헌: 저(편)자명, (년도), 서(논제)명, 출판지, 출판사명, 면수

정기간행물

참고문헌: 지(편)자명, (년도), "표제" 간행물 명칭, 권수, 면수

(격 월 간)

(제29권 제3호) 통권 156호

1965년 6월 29일 등록

등록번호 서마 1

서기 1990년 8월 30일 인쇄
 서기 1990년 9월 5일 발행
 발행 겸 편집인 박 정 호
 인 쇄 인 김 용 주
 발 행 처 사단 법인 대한간호협회
 기 획 삼 진 인 쇄 공 사

The Korean Nurse

Vol. 29, No. 3 Sep. 5, 1990

Publisher (Editor) : Jung Ho, Park

Published Bimonthly by

Korean Nurses Association

88-7, Ssanglim-Dong, Choong-Ku,

Seoul,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88-7 (279) 3618
 (279) 3619